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3월 9일
(월요일)

복부신문 3면

interview

강북구의회 이백균 최고고도지구안화 특별위원장

“최고고도지구 강북구 발전 저해 요인, 고도제한 완화 매진”

층수제한 삭제는 실질적 혜택 없어 조삼모사 식 보여주기 식 행정



“한번 고배를 마시고 더욱 지역을 위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대에 이어 7대에도 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 같다.”

“3선 의원으로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는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은 그렇기에 더더욱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고고도지구안화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최고고도지구안화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을 또 선택해준 주민에 대한 보답이라며 반드시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만큼 강북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고고도지구안화라는 것이 이백균 의원의 변함없는 생각.

강북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은 “기존의 고도제한에서 층수제한을 없앤 것은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전혀 강북구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1991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의 고도제한이 강북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최고고도특별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고도지구안화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최고고도지구 내 토지주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또 일부지역의 경우 자연경관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층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 받고 있어 특위는 지역주민과 간담회도 갖고 서울시의회도 방문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위 활동 외에도 이 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도 항상 관심이 많다. 특히 빨래골도로 확장공사의 빠른 완공으로 삼흥연립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다.

또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인수동과 우이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지소도 설립하는데 앞장설 계획도 갖고 있다.

또 타구에는 1~3개씩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강북구에는 없다며 4대 때부터 주장해 온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이뤘을 욕심도 갖고 있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 의원은 지난 임기에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연장하기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한 것과 우이동 시민의 광장 앞 소나무를 그대로 존치하게 해 비용절감과 함께 광릉수목원 도로가 연상되도록 운치 있는 곳으로 바꾼 것도 가슴 뿌듯하다고. 그만

큼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백균 의원의 일문일답.

Q1 7대 의정활동과 최고고도지구 안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는?

A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내·외 간 형평문제 등 최고고도지구 내 재산권 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다.

Q2 6대 활동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어떤?

A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했던 6대 후반기에 서울시의회에 요청해 예산을 확보한 가오천 정비사업과 북한산 백련사 인구 화장실 설치 등이 보람된 기억이다. 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Q3 강북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1991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의 고도제한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도 높이가 조정되고 작년에 층수제한이 풀리긴 했지만 강북구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삼모사 식 보여주기 행정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오는 4월 7일 강북구 고도제한 지역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Q4 고도제한 외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은?

A 빨래골도로 확장공사다. 1차구간이 끝나고 2차구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삼흥연립 앞 건물보상이 끝나는 대로 월계해 삼흥연립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인수동과 우이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인수초 중학교 부근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어린이공원과 복합건물(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심각한 주택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타구에는 1~3개씩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강북구에는 없다. 4대 때부터 주장해 온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7대에는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Q5 지난 임기에서 주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는?

A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강북중학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공사를 곧 시작하지만,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우이동 시민의 광장 앞 도로확장공사에서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었는데 소나무를 중앙분리대형태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소나무 이설비용절감과 광릉수목원 도로가 연상되게끔 운치 있는 곳으로 바꾼 것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Q6 의정활동 시 꼭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각오와 구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지난 의정자료와 구의 지난 업무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민이 원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민 역시 구와 지방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우리 정치인들을 조금씩 변화하게 할 것이다.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정말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장 등 주민들 편의 이끈 의정 뿌듯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

“고도제한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희망 주겠다”

“강북구의회 제4대와 제6대에 이어 제7대에도 주어진 책임 또한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정을 파악하고 공부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백균 의원의 말이다. 이장식·이윤균 의원과 함께 특위를 구성한 이백균 위원장은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외간 형평문제 등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최고고도 특위는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은 제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 내 토지주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자연경관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층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다.

▶ 7대 의정활동과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는?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밑보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이 되도록 ‘소신’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내·외간 형평문제 등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6대 활동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있다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제6대 후반기에 서울시의원에게 요청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오천 정비사업과 북한산 백련사 입구 화장실 설치 등이 가장 보람된 일로 꼽을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강북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

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991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삼양동, 수유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의 고도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높이가 조정되긴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오는 4월 7일경 강북구 고도제한 지역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

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는 탁상행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지역구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현안, 혹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빨래골도로 확장공사 1차구간이 끝나고 2차구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삼흥연립을 건물보상이 끝나는데도 철거해 삼흥연립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진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인수동과 우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보진소를 설립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인수초 중학교 부근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어린이공원과 복합건물(어린이집,경로당,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구에는 1~3개씩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강북구에는 없어 축구동호인들이 타구로 이동해 경기를 하는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대 때부터 주장해 온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7대에는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에 대

한 이행은?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강북중학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공사를 곧 시작하지만,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한 것은 참으로 보람됩니다. 우이동 시민의 광장 앞 도로확장공사에서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었는데 소나무를 중앙분리대 형태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소나무 이식비용감과 광릉수목원의 도로를 연상케해 운치 있는 곳으로 바꾼 것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 의정활동이 꼭 지키고 싶은 시민의 각오와 구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의정자료와 구의 지난 업무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민 역시 구와 지방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우리 정치인들을 조금씩 변화하게 할 것이다.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정발 행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영일 기자